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마무리… 매킨타이어 우승
제네시스는 15일 스코틀랜드에서 나흘간 진행된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로버트 매킨타이어(세계랭킹 44위)가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왼쪽부터)과 우승자 로버트 매킨타이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네시스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1억 전달

중기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출연금 1억원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서울동북부건재유동사업협동조합 등 3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왼쪽 2번째부터)김기문 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캠코,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 총괄이사(오른쪽 네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CJ제일제당, 희귀병 환자 ‘햇반 저단백밥’ 후원

CJ제일제당은 희귀병인 페닐케톤뇨증(PKU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6년째 ‘햇반 저단백밥’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22회 PKU가족캠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삼표시멘트, 덕산해수욕장 해양정화 활동 전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삼척경찰서 직장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강원도 덕산해수욕장에서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삼척경찰서 직장 어린이집 아동, 부모 등 20여 명 함께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바다에서 유입된 페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삼표그룹

주한 미 대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

정기선, 골드버그 대사 동행… 함정사업 협력 논의

(HD현대 부회장)

이지스함 등 건조현장 점검 이상군 대표 “美 협력 강화”

주한 미국 대사 일행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함정사업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5일 필립 S.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미국영사 등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HD현대 정기선 부회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군 사장이 동행, HD현대중공업의 주요 사업 현황을 직접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골드버그 대사가 글로벌 1위 조선사이자 함정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을 직접 둘러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골드버그대사 일행은 HD현대중공업의 상선 건조 현장을 시찰한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 차세대 이지스



마이클 말린 미 합동군사교문(왼쪽부터), 놀란 바크하우스 주한 미국 영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15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축함, 최신에 초계함 등 건조 중인 함정들과 도크, 창정비시설 등을 살펴봤다.

특히 미국이 자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서 미 해군과의 협업 가능성을 높여주

고 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 후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며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포

함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군 대표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랜 우방이자 세계 최강 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방산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마련

12월말까지 운영… 무료 관람 100년 여정 등 7개 구역 구성

삼양그룹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상하농원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안녕 100’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방문객들에게 삼양그룹의 창업 및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현재 삼양그룹의 주요 사업과 제품, 기술력을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WELCOME TO SAMYANG(삼양에 온 것을 환영해) ▲JOURNEY OF SAMYANG(삼양 100년의 여정) ▲STROLL OF SAMYANG(삼양 산책하기) ▲STORY OF FOUNDER(창업주 이야기) ▲MOVE WITH SAMYANG(숫자로 보는 삼양) 등 총 7개의 구역으로 구성됐다.

삼양 100년의 여정과 창업주 이야기에서는 삼양의 지난 100년 역사와 창업주인 고(故) 수당 김연수 선생의



‘안녕 100’ 특별전시회

/삼양그룹

경영철학과 나눔정신을 소개한다.

삼양 산책하기와 숫자로 보는 삼양에서는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 등 삼양이 현재 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성과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꿈꾸는 삼양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수당 선생이 본인의 경영철학을 빚대어 직접 그린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주중에는 방문객들이 은행잎 모양의 점착식 메모지에 자신의 꿈과 미래를 직접 작성하고 붙여서 꾸미

는 활동이 진행된다. 주말에는 은행잎 모양의 재활용 플라스틱 키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0주년 축하하기는 참가자들이 100주년 페이퍼 안경을 직접 꾸미고 만들어 삼양그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중(월~목)은 자유관람, 주말(금~일)에는 전문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갤러리아 환아가정 휴식 지원

한화갤러리아가 중증 입원 아동을 위한 사회지원 활동에 나섰다.

갤러리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와 함께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러리아에 따르면,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그램은 중증 환자 보호자의 휴식을 돕는 한화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30여 가정이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어린이 입원지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들은 전국 한화호텔 및 리조트에서 여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우나, 수영장, 아쿠아리움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과 조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공무원 노사협력관 이경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신현미

부음

▲이상수씨 별세, 이연주(대구시교육청 총무과)씨 부친상 = 15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6시30분.

▲한용석씨 별세, 한용수(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씨 부친상 = 15일, 경기도 안성 도민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30분.

▲홍순형씨 별세, 홍성완(클루커스 대표)·성준·은실·영득씨 부친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7일 오전 7시.

JW중외제약, ‘2024 아트어워즈’ 개최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 주제 내달 30일까지 작품 접수

JW중외제약이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에서 ‘2024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너와 나, 우리의 세상은’을 주제로 열린다. 이 주제는 장애 작가와 세상의 연결 및 공감을 강조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

을 존중하고 포용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2024 JW 아트어워즈’는 공모전 주제에 맞게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분야에서 올해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자격은 만 1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규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8월 30일까지 JW이종호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출품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접수하면 된다. 출품료는 별도로 없으며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본 작품을 선정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20명 등으로 오는 10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총상금 규모는 국내 장애인 미술 공모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입선 각 30만원 등이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